

안전대의 올바른 판매 및 구매법



일터안전에서
국민안심으로

안전대는 인증받은 제품 전체를 그대로 사용해야합니다.
안전대 구매 시 용량·등급 및 사용설명서를 꼭 확인하세요!

KCS
표시

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필

안전인증품목: 안전대
형식·모델명: XXXX
용량·등급: XXXX
안전인증번호: **-AV*CY-****

안전인증일자: 20**.**.**.
제조일자: 20**.**.**.
제조사명: (주)XXXX



KCS인증을
꼭 확인하세요!

자세한 내용은
산업보건인증원
[홈페이지](#)에서 확인

안전대
선정
지침



그네식 안전대

그네식 안전대는 추락 시 충격하중을 분산시켜
신체보호 효과가 뛰어납니다.

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그네식 안전대를
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※ 벨트식 안전대는 추락 시 하중이 허리에 집중되어
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험장소 접근
제한용으로 사용하기 권장합니다.

판매
구매
지침

인증받은 안전대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품의 일부를 교체한 제품은 최초 인증 당시의 성능수준을
담보할 수 없는 미인증품으로 판매, 구매 및 사용을 금합니다.

인증품



A사



B사



C사



D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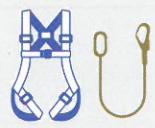
미인증품



A사 + B사



B사 + A사



C사 + D사



D사 + C사



01

안전대는 인증받은 **제품 전체를 그대로 사용**하여야 합니다.

02

더블(이중)침줄은 안전대 부착설비에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 시 사용합니다. 사용 할 침줄을
연결한 뒤 이전에 연결한 침줄은 분리하는 순서로 이동하며, 그 외 **작업 시 흑은 1개만 걸어**
사용해야 합니다.

03

추락방지를 위한 침줄은 반드시 **등 부위 D링에 연결**합니다.

04

앞가슴에 위치한 D링은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**사다리 승강 등 작업에는 앞가슴**
D링에 침줄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수구조로 인증된 안전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사용
지침

산업용 안전화의 판매 및 구매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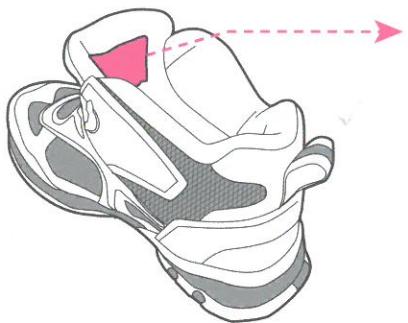
올바른



인터넷에서
국민안심으로

“온라인 판매 작업화는 근로자 보호기능 없는 것으로” 인터넷 등
온라인에서 안전화 구매 시 KCs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!

KCs
표시

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필

안전인증품목: 가죽제 안전화
형식 · 모델명: XXXX
용량 · 등급: XXXX
안전인증번호: **-AV*CR-****



KCs인증을 꼭 확인하세요!

자세한 내용은 [산업보건인증원 홈페이지](#)에서 확인

안전화
선정
지침

중작업용

- 건설업 및 철광업에서 중량이 큰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
- 광업, 건설업 및 철광업등에서 원료취급, 가공, 강재취급 및 강재 운반, 건설업 등에서 중량물 운반작업, 가공대상물의 중량이 큰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우려가 있는 장소

보통작업용

- 기계공업, 금속가공업에서 가공품 취급 및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작업
- 기계공업, 금속가공업, 운반, 건축업 등 공구 가공품을 손으로 취급하는 작업 및 차량 사업장, 기계 등을 운전조작하는 일반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 우려가 있는 장소

경작업용

- 전기제품 조립, 식품가공업 등 가벼운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
- 금속 선별, 전기제품 조립, 화학제품 선별, 반응장치 운전, 식품 가공업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 우려가 있는 장소

판매
구매
지침

01

온라인(인터넷, 홈쇼핑)에서 제품 판매 시 KCs 미인증 안전화 또는 물체의 충격, 못 찔림 보호 등의 작업화 광고는 안전화가 필요한 사업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야 합니다.



02

온라인(인터넷, 홈쇼핑)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안전·작업화는 산업현장 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
(성능시험결과, 발등, 발가락 및 발바닥 보호기능 부족)



03

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화는 작업 조건, 안전화 등급 등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며, KCs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

안전성이 보장된 KCs 산업용 안전화를 구매, 착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시다.